

여성 반동인물에 대한 보복살인과 그 정당화 과정

—〈하진양분록〉과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황지현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목차

- 1 보복살인을 둘러싼 발언과 침묵의 의미
- 2 여성 반동인물에 대한 공적 처벌과 보복살인의 양상
- 3 살인의 정당화 전략과 사회적 용인의 과정
- 4 정당화의 역설과 미완으로 남은 음녀 서사

국문장편소설 연구에서 복수와 반동인물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다. 본고는 〈하진양문록〉과 〈유씨삼대록〉을 대상으로 남성 주동인물의 여성 반동인물 보복살인 양상과 그 정당화 과정, 다양한 입장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변 인물들의 발화와 침묵을 검토하였다. 사적인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강도 높은 비판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용인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긍정이나 동조로만 독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정당화의 논리와 동조, 방관, 우회적 비판의 목소리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할 수 없는 상황적 맥락에 주목하였다. 진세백과 유현은 과시적 살인을 통해 스스로를 도덕적 인물이자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존재로 격상시켰지만 동시에 그 현장에서 정당화에 균열을 가하는 복합적인 발화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남성 주동인물에 의해 기획된 음녀 서사는 역설적으로 균열이 발화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국문핵심어: 국문장편소설, 살인, 복수, 반동인물, 음녀

1 보복살인을 둘러싼 발언과 침묵의 의미

사적 복수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성문법과 일상 감각에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도 개인의 복수가 공감대를 얻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해에 대한 되갚음이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인에게 행하는 폭력은 사적 복수인가? 정의의 실현인가? 정의이면서 동시에 복수인가?

국문장편소설 〈하진양문록〉과 〈유씨삼대록〉에는 국가의 처벌을 받은 여성 반동인물 하교주와 장설혜가 남성 주동인물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¹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의 교화적 메시지로 독해될 수 있지만 살인을 둘러싸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남성 주동인물의 발화와 함께 각자의 입장에 따라 동조와 방관, 비판의 목소리들이 혼재되어 있어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국문장편소설은 태생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조적 태도와 그로 인한 고통이 공존하고 있는 작품군이다. 연구사가 축적되면서 행간에 존재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의 지점들을 포착하려는 시도에 이어 관계 역학에 대한 연구들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폭력의 문제가 주로 가해자가 악인인 경우이거나 남성 주동인물이 여성 주동인물에게 가하는 것²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다양한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동인물에 대한 폭력이 복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례는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³ 복수(復讐)는 국문장편소설 연구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⁴

〈하진양문록〉과 〈유씨삼대록〉에서는 사족여성⁵ 살해를 놓고 이루어지는 분분한 발화를 통해 개인적 복수와 공적 처벌이 교묘하게 뒤엉키고 있다. 여기서 분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복수의 행위를 넘어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⁶ 두 작품에는 살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강도 높은 비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복살인이 긍정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인물들의 입장과 발언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발화뿐만 아니라 침묵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정당화와 균열의 힘을 함께 확인한다면 보복살인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 본격적

- 1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두 작품은 작품의 성격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하진양문록〉은 19세기에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통속성이 강한데 반해 〈유씨삼대록〉은 18세기에 이미 창작된 것으로 보이며 전아한 상층 예법이 섬세하게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 반동인물에 대한 보복살인의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남성 주동인물인 진세백과 유현이 저지른 살인은 국가의 처벌을 받은 사족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과 살인의 동기 및 그것을 정당화 하는 과정, 개인적 복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문제 제기 없이 무마된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 2 정선희는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상황이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주목하고 이것을 ‘폭력적 행위’라고 명명하였다.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한길연은 국문장편소설군에서 ‘남편 폭력담’이라는 단위담을 추출하고 이것이 남성 폭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위안처로 기능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체제순응성과 반체제성을 동시에 지적했다.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복수, 그리고 반동인물에 대한 폭력행위를 분석함으로써 국문장편소설군이 지닌 다층성의 일면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여성 반동인물에 대한 공적 처벌과 보복살인의 양상

〈하진양문록〉의 하교주와 〈유씨삼대록〉의 장설혜는 국가의 처벌을 받지만 그 수위에 만족하지 못한 진세백과 유현에게 살해당한다. 이들이 반동행위를 했다는

3 공혜란은 구조적 폭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부장제와 신분제라는 이중 억압의 의미를 밝혔으며(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가해와 피해, 남성과 여성의 구획을 넘어 폭력의 양상과 의미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최어진의 논의(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관계 윤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위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함께 논의한 고은임의 연구(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가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폭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그 전후를 둘러싼 관계, 폭력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장시광은 여성반동인물이 궤절과 반역을 저지른 경우 처형당하며, 남성인물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있으면 주로 회과나 자연사로 처리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4쪽) 하지만 이러한 처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적 복수로서의 살인과는 구분된다.

4 영웅소설의 경우 이정원이 〈유충렬전〉과 〈조웅전〉을 복수의 서사로 독해하고 그 서사적 효과를 논하면서 동양에서 부모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기록들을 살핀 후 복수의 윤리성,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정원, 「복수의 서사로 읽는 영웅소설」, 『국어국문학』 제186호, 국어국문학회, 2019)

5 논의의 대상을 사족여성으로 한정된 것은 신분제사회에서 법의 적용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하진양문록〉의 하교주가 살해 당시 관기의 신분이었다고는 하나 태생은 사족여성이기 때문에 사족여성 살해 범주에 포함시켰다.

6 개인의 폭력은 그가 성장한 사회적 배경 및 정황과 분리될 수 없을 뿐더러 폭력이 억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환경에 있다. 최어진(앞의 글, 7-14쪽 참조)은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부정의에 대한 연구 가운데 “폭력이나 괴롭힘이 범죄자나 극단주의자 등 특정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지만 폭력을 억압으로 만드는 것은 폭력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환경에 있다”는 점을 인용하였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 김도균 외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101-156쪽)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엄연한 공적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원하던 남성 주동인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여기서는 하교주와 장설혜의 범죄와 그에 따른 공적 처벌, 남성인물들의 보복살인 양상과 동기를 살펴보겠다.

2.1 여성 반동인물의 범죄와 그에 대한 공적 처벌

하교주와 장설혜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당대의 규범은 물론 오늘날의 윤리로 보아도 수용하기 힘든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하교주의 경우 문하객이던 진세백에게 매료되어 시비로 변장하고 이복자매의 정혼자인 그와 사통(私通)함으로써 규문의 법도를 어겼으며 옥윤이 박색(薄色)에 포악하다고 모함해 혼사에 대한 마음을 돌리도록 충동질한다.⁷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를 해칠 마음을 먹고, 강간혐의를 씌우자는 동복(同腹) 하영화의 계교에 가담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문에 큰 화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후 명문거족 조원과 혼인한 하교주는 구고(舅姑)와 남편의 총애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뜻밖의 계기로 과거의 일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영화 삼형제의 황후 모해사건으로 삼족지멸(三族之滅)이 결정되자 진세백은 부친 하공과 동복(同腹) 백화를 살려달라던 하옥윤의 당부를 기억하고 상소를 올리는데 여기에 하교주의 과거 범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⁸ 이 상소문은 그녀의 처벌에 결정적이고 유일한 계기가 된다. 천자는 진세백의 보고서⁹를 바탕으로 ‘50장을 더 치고 관비로 정속시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사족여성으로서의 지위 박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살인을 당한 셈이다.

-
- 7 하교주의 동기는 옥윤에 대한 질투심과 편애로 일관하며 자신을 차별하는 부친 하공에 대한 원망, 훌륭한 배필을 만나고자 하는 현실적 욕망, 진세백에 대한 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8 해당 상소문에서 진세백은 주씨 소생들과 하공, 백화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영화 삼형제의 죄악보다 교주의 과거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소문의 말미에 다시 한 번 ‘음녀 교주는 천하 죄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녀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장설혜의 범죄는 원위(元位) 양소저와 시부(媿父) 진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양소저에게 여러 누명을 씌운 끝에 자객을 시켜 그녀를 겁탈하게 하나 미수에 그치고 일련의 범행이 발각되면서 출거 당한다. 장설혜의 모함을 믿고 양소저에게 폭력을 일삼아온 유현은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장설혜의 원망은 시부에게로 향하게 된다. 결국 진공만 제거한다면 유현과 재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를 암살하려다 실패하자 보복이 두려워 역모죄를 씌우는데 이 무고(誣告)는 조정에서 시비가 가려진다.

죄질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하교주에 비해 장설혜의 죄가 훨씬 막중해 보인다.¹⁰ 하지만 사정을 전혀 몰랐던 부친 장시량이 제가(齊家)를 잘못된 죄로 극변원찬(極邊遠贖)을 당하고 김부인은 액사(縊死)에 처해진 것과 달리 그녀는 ‘어린 아녀자가 주변 사람에게 휘둘린 것’과 ‘출거당한 원한’이 참작되어 관대지전(寬大之典)으로 목숨을 건지고 장문에서는 유폐를 결정한다. 천민으로 몰락한 하교주에 비하면 처벌의 수위는 미미한 셈이다. 애초에 하교주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진세백이 복수를 위해 기획한 것이었다. 하지만 진세백의 발언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정절 상실과 규문 여성의 사통이라는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2.2 연출된 살인을 통한 사적 복수와 책임 은폐

국가의 처벌 수위를 받아들이지 못한 진세백과 유현은 각각 하교주와 장설혜를 살해한다.¹¹ 애초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처형이었기 때문이다. 하교주의 경우 사사(賜死), 장설혜는 참수(斬首) 당하는데 신체 훼손이라는 측면에

9 하교주는 문초 과정에서 사통과 동기(同氣) 모함을 인정하면서도 “강간혐의로 모함하고 진세백을 죽이려 한 것은 다 영화의 계교이고 옥운은 자살했으니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0 물론 두 작품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단선적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 작품 내에서 이루어진 처벌이 실제 조선 후기의 법체계와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정절을 잃은 사족여성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는 후자가 더욱 폭력적이지만 전자의 경우 살인 무대를 연출해 심리적 복수를 누린다는 점에서 두 사건 모두 상당한 폭력성과 분노가 동반된 보복살인임을 알 수 있다.¹²

진세백은 관기(官妓)가 된 하교주를 남편이었던 조원 앞에서 살해한다. 그에게 미녀를 추천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조원의 눈앞에서 교주를 살해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파악한 조원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두 번이나 이를 막는 한편¹³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교주를 조롱하다가 입에 독약을 들이붓는다.¹⁴ 하교주와 조원은 서로 애정이 깊었던 사이였다. 애썼었던 상대 앞에서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복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교주가 살해 당시에는 관기의 신분이었다면 장설혜는 엄연한 사족여성으로서 장문에 거쳐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현은 이를 개의치 않고, 눈물로 호소하는

-
- 11 작품이 향유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개인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성문법에 근거한 국가와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문이 암묵적으로 처벌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유씨삼대록>에서도 장설혜의 국가 처벌과는 별도로 장문에서 그녀의 유폐를 결정한다. 하지만 진세백과 유현의 보복살인은 가부장의 권위, 공론화된 동조와 묵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문 내 징계와는 구분된다. 하교주의 부친이 딸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는 하나 그 전부터 진세백은 그녀를 죽일 뜻을 분명하게 품었으며 유현은 장문에서 이미 처벌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사적인 보복살인이다.
 - 12 비록 강렬한 분노를 보이고 있지만 복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 연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살인을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 13 “사되 아라보고 초약경히호여 이에 소매를 썰쳐 니러나니 왕이 잡아왈 공은 가지말고 혼가지로 읊녀를 다소리리니 주군은 동기와 턴눈의 거리세미 이시니 하공을 츄마 면박지 못허려니와 수원은 의결호여시니 므슴 구이호미 이시리오. 맛당이 쾌히 쳐치호리라. 도스되 불헿호나 강잉호여 도로 안겨늘…소매를 썰쳐 니러나 왈 내 가려늘 거술 브절업시 말뉴호여 이 히겨를 보게 호노뇨. 왕은 스스로 즐길지이다. 호고 가려호겨늘 왕이 쇼왈 이 쏘 기관이라. 당뵈되여 므슴 슈치호미 이시리오…스되 마지 못호여 안겨늘…” (〈하진양문록〉, 권지십오, 3-15면)
 - 14 “드디여 좌우를 명호여 독약을 프러 먹이라호니 교취 발악호고 먹지아나 호곡왈 도상공은 첩의 잔명을 구호소서. 첩이 일죽 존문의 드러간지 삼년의 추호도 득죄호 일이 업셔 환난을 만난지라. 빌건디 슬오소서…첩이 황명으로 대왕기 왓겨늘 도로혀 무단이 장살코져 호시노뇨…드디여 좌우를 호령호여 위력으로 약을 먹이라 호니…” (〈하진양문록〉, 권지십오, 9-11면)

장설혜의 머리를 베어버린다.¹⁵ 처형을 주장하는 상소가 반려(返戾)되자 격렬한 분노 속에서 칼을 들고 찾아갔으면서도 온화한 기색으로 오해를 풀고 싶다며 독대할 기회를 얻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보인다. 진세백이 심리적 장치를 통해 복수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면 유현은 목을 베어버림으로써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¹⁶

앞서 언급했듯이 진세백과 유현은 처음부터 처형을 목적으로 공적 처벌을 이용하고자 했었다. 그들은 다수가 개입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교주와 장설혜에 한정해 분노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몰아세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형’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녀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하진양문록〉의 다른 악인들과 하교주에 대한 진세백의 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단죄가 단순히 악인의 악행을 처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추측케 한다. 진세백은 하영화 삼형제를 문초(問招)하면서 연민을 보이는 한편 온건하기까지 한 태도를 취한다.¹⁷ 실상 그들의 죄가 더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모진 매를 맞고 끔찍한 몰골이 된 영화 삼형제와 교주에 대한 진세백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¹⁸ 이 상이한 태도는 하교주 살해의 동기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진세백은 하영화 삼형제의 반동행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피해자이지만 하

15 “언절의 촌 칼을 싸혀 혼변 당시를 해후매 서리긋흔 놀히 디난난 곳의 미인의 머리 싸히 찌러져 놀난 피 하늘의 뽀이고 쏫 고흔 얼굴이 변후여시니 좌우 시네 실식 디경호고 상셔 부체 이 말을 듯고 혼블 니테후여 총망이 니르러 울고…” (〈유씨삼대록〉, 권지십이, 56쪽)

16 조선시대에는 죄질에 따라 사형 시 신체 훼손의 정도가 정해졌으며 배려 차원에서 사사(賜死)나 액사(縊死)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후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체훼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심각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17 유광수는 “아무리 국가의 죄가 있다고 해도 자신을 받아줬던 하씨 집안의 세 아들을 도륙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형제를 두둔하지 못한다 해도 앞장 서는 것은 과했다.”고 지적하였으나 본고는 진세백이 하영화 삼형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보았다. (유광수, 「〈하진양문록〉의 작가의식과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열상고전연구』 제47권, 열상고전연구회, 2015, 205쪽)

18 하영화 삼형제는 대신을 논획하는 한편 후궁과 결탁해 황후를 모해하는 등 국가적 범죄를 주도해왔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따져도 하영화는 진세백을 해칠 기회를 엿보다가 그가 교주와 사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강간 혐의를 씌우고 살해하려 한 인물이다. 하지만 진세백은

교주와의 관계는 다르다.¹⁹ 자신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하문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떳떳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시비로 변장한 교주에게 먼저 동침을 제안했으며²⁰ 문하객으로서 내당 시비와 잠통(潛通)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²¹ 1년 동안 육체적 관계를 지속한 점이 발목을 잡는다. 이후 진세백이 정혼자 하옥윤과 하공, 천자 앞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변명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²² 격렬한 분노 이면에는 부채감과

영화의 처지를 참담하게 여기며 이러한 기색을 주변에서 지적할 정도로 숨기지 못한다. “진상세 심하의 탄왈 추인 등을 굿투여 내 손의 다수리니 턴니보응이 었디 니러트 소소흔고 탄식후여 심히 즐기지아니터라…쌔브리지고 살이 허여져 봉두귀형이라. 소견의 참혹하니 당상 제인이 다 추악후여 늦출 가리오고 참아보디 못하고 진상세 역시 참답이 녀여 불안후나 이 국가 연괴라…상세 청파의 추연 탄왈 내 었디 구원을 생각후리오마는 국가 대옥의 었디 수정이 이시며 비록 부주의 정이 이신들 었디 구휼 길이 이시며…계공이 번식왈 이 죄쉬 전일은 고인이나 금일은 국가 죄쉬니 공이 위관이 되엇거늘 언시 이러트 만홀후리오.” (〈하진양문록〉, 권지사, 60-66쪽)

이에 반해 교주에 대해서는 극심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처참한 모습에도 태연해한다. “널 좌 공경이 추마보지못후디 홀노 진상세 한번 보미 넷일이 요연후여 하시 죽으를 생각후니 평심 절치부심후여 분기 흥격의 업이후니 위엄을 대발후여 극형업문 왈…일장의 피육이 후란후고 연흔 쌔 브리지니…옥갓튼 다리의 불근 피 임니후니 그 형상이 참불인견이라. 공부상셔 도현 왈 균은 불근인정이로다. 차네 대악이 호디후나 었지 저디도록 후리오.” (〈하진양문록〉, 권지오, 4-8쪽)

- 19 유광수는 “진세백은 자신이 교주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하공에게 말하기보다는 한밤중에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다. 실제로 교주와 간통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때는 이미 옥윤과 정혼한 상황이었기에 바른대로 하공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광수, 앞의 글, 203쪽)
- 20 “일죽 풍진의 뉴락후여 미식을 보지못후엿다가…미소후고 문득 그 손을 잇그러 니러나며 왈 내 무음이 적적후미 심후더니 금야의 나의 직회를 위로후미 었더후노. 소량이 함터 재미후여 손을 썰치거늘 심이 소왈 네 날갓튼 낭군으로 일야를 동숙후미 포흔 히롭지 아니리니 소양후논체 말나. 언파의 옥슈를 닛그러 방등의 드러가 쟁가침금을 포셜후고 미녀와 즐기미 기간 중정이 무궁후더라.” (〈하진양문록〉, 권지이, 6-8쪽)
- 21 “문하객이 되어 주인이 동당을 바드며 방주히 니당시녀를 친근후니 올흔 되 아니라. 노야 아르시면 글니 아르실비오 내 포흔 무안후리로다. 모르미 남이 알게 말나.” (〈하진양문록〉, 권지이, 8쪽)
- 22 진세백은 자발적으로 하교주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옥윤과 하

그를 상쇄하기 위한 책임전가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²³

한편 유현은 사건 이전부터 장설혜의 존재 자체에 큰 부담감을 느껴왔다. 애초에 유문 내 장설혜의 존재는 온전히 그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⁴ 그는 장설혜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믿던 상황에서조차 그녀와 관련된 잡음들로 인해 ‘신인(新人)을 들인 자신’이 질책을 받을 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장설혜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설사 그녀가 피해자라고 해도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보복살인의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유현의 살인에 대해 부친을 해하려 한 점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벌인 극단적 폭력이라는 성격에 주목하였다.²⁵ 하지만 부모를 모해한 원수를 처단한다는 단선적인 결정과정 이면에 그녀의 반동행위가 유현 자신에게 귀책 됨을 인식했다는 점을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 유현은 부친을 역모로 무고한 것이 장설혜의 소행임을 듣고 ‘늪우침과 참피함’을 견디지 못해 자결하다가 마음을 돌려 곧바로 그녀의 처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다.²⁶ 부모를 해하려 한 원수를 갚는다는 일차원적 도식 안에 부채감과 그로 인한 내적 위기, 이것을 해소하기

공, 천자 앞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물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농락했다’고 하여 책임을 축소하는 한편 ‘남아의 춘정’으로 합리화한다.

23 진세백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하교주를 살해했다는 점은 유광수(위의 글)와 김미정이 지적한 바 있다. (김미정, 「대하장편소설에 나타난 불온성과 전복성 그 의미와 한계: 〈하진양문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 제4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고아로 유랑하던 자신을 구해준 은인(恩人)의 가문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에게 약속된 미래를 스스로 깨트렸다는 자책감도 있었을 것이다.

24 일부일처를 가법(家法)으로 표방하고 있는 유문에 장설혜가 차위(次位)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마찰이 있었으며 진공과 장부인은 그녀의 인물됨을 우려해 혼인을 극구 반대했었다.

25 공혜란은 “장설혜가 아버지 유세형을 모해하고 가문을 멸하려하자 바로 목을 베어 죽인다.”고 하여 유현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공혜란, 앞의 글, 93쪽) 고은임도 “양소저에 대한 범행과는 달리 부친을 해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깊었던 사랑만큼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직접 처단했다”고 하였다. (고은임, 앞의 글, 100쪽)

26 “뉴시량이 추시의 당시로 인하여 대변이 니러나를 생각하니 조그 죄 죽기를 먼티 못홀디라. 늪우봄과 참피함을 이기디 못하여 스스로 죽고며 후다가 고쳐 생각후디 내 만일 죽은즉 브휘

위한 처형 주장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진세백과 유사한 양상이다.

진세백과 유현은 하교주와 장설혜의 범행이 일정부분 자신들의 책임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상대에 대한 강렬한 분노로 전이되었다.²⁷ 한편 살인 전후 자신들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살인의 복합적인 동기를 짐작케 한다.²⁸ 반동인물들에 대한 진세백의 상이한 태도와 내적 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장설혜의 처형을 주장하게 되는 유현의 모습은 이 보복살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되갚는 행위로만 파악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는 동시에 손상된 도덕적 우위를 회복하기 위한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살인의 정당화 전략과 사회적 용인의 과정

진세백과 유현의 살인은 어떠한 공식적 문제제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용인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진세백과 유현의 발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제기나 비판이 부재하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살인에 대한 동조로 볼 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진세백과 유현의 정당화 전략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인물들의 입장과 상황적 맥락들

더으리니 이 붓그러오를 김히 슈츠히야 허믈을 고터 성문의 용납허를 괴약허리니 엇디 즈레 수싱을 가비아이 허리오.’ 허여 마음을 텅허고 명일 표을 녀 즈가의 계가 못헌 죄와 당시의 죄 강상을 범허여시니 안눌 처치허여지라 허여 만언소를 올니고 궤하의 디죄허니...” (〈유씨삼대록〉, 권지십이, 52쪽)

- 27 진세백과 유현이 상대의 반동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 떳떳할 수 없는 부분과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28 만약 스스로를 악인의 작난에 휘말린 무고한 피해자라고 인식했다면 과거 행동을 변명하거나 과실을 축소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게 부담감과 부채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그녀들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자 음녀로 지목한 것이다.

을 통해 동조와 방관, 비판의 정황들을 살펴보겠다.

3.1 공적 성격 강조와 연민 차단을 위한 전략

진세백과 유현의 행위가 용인되기 위해서는 살인 행위 및 그 방법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²⁹ 진세백의 경우 하공이 그녀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문 내 명예살인이자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 살인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지닌다.³⁰ 이에 반해 유현은 엄연히 타문의 사족 여성을 참수했고 중대 사안을 자결(自決)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개인적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당화를 꾀한 공통점이 확인된다.³¹

강상의 죄인을 처벌해 경계의 표본으로 삼음으로써 풍속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은 보복살인을 치국(治國)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에 기여한다.³² 실제로 진세백은 풍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유현은 부친의 원수라는 점에서 인륜의 도리를 설파한다. 다음으로 살인행위를 국법의 연장선상에 놓은 것이다. 앞의 내용이 처벌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행위 자체를 공적인 영역에 포함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현은 참수가 과도했다는 주변의 지적에 대해 “국법에 따라 극률에 해당하는 죄를 극률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국법의 실현으로 정의

29 물론 정당화 시도가 실패한다고 해서 진세백과 유현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당화는 공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성격이 아니라 하교주와 장설혜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자 음녀로 명명하고 사적인 보복살인을 정당한 것으로 격상시켜 손상된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30 하공의 부탁이 있기 전부터 진세백은 하교주를 살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명예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하공의 적극적 동조가 살인의 정당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31 공사(公私)의 구분은 사회와 개인, 정부와 민간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한 개인으로서 진세백과 유현이 지니는 목적, 동기, 의도와 대비되는 사회, 국가를 아우르는 것으로 공(公), 공적(公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겠다.

32 물론 이들이 강상의 법도를 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세백과 유현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한다.³³

보복살인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살인 행위 자체를 옳은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인 동기를 지우는 효과도 수반한다. 상대에게 느끼는 격렬한 분노와 원망, 자신의 부채감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들이 자연스럽게 소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외에 정당화를 위해 명예살인의 성격³⁴과 천명(天命)의 표방³⁵, 후환을 제거함으로써 문호를 보호³⁶한다는 논리가 소환된다.

그런데 이 시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정당성을 표방하는 것과는 별개로 연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화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민의 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세백과 유현은 하교주와 장설혜를 둘러싼 동정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연민을 느끼는 주체에 대한 비난과 연민의 대상에 대한 평가 절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세백과 유현은 연민의 감정을 ‘사정(私情)’이나 ‘아녀자의 태도’, ‘호색(好色)’ 등으로 치부해버린다.³⁷ 이러한 부정적 프레임은 감정 주체가 자신이 느낀 것을 발화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연민차단에 기여한다. 연민의 대상을 음녀로 지목함으로써

33 유현은 과도함을 지적하는 장상서 부부와 장부인, 양소저에게 잇달아 유사한 발화를 한다. “차녀의 죄악이 극늘의 잇는디라. 엇디 스정으로써 용사흐리잇고…니론 바 부모와 가문을 멸하려 호는 계집이라. 그 머리를 버히미 과도치 아니흐니 대인은 고이히 녀이디 마루쇼셔…히이 이를 못 싱각흐미 아니로디 제 임의 전후의 대인을 모해흐미 극늘의 함혀시니 제 극늘을 바다야 올흔고로 참혀엇더니 조괴 여초흐시니 불승환연히이다…당녀를 죽이믄 당초 국법을 청혀 엇디 못흐매 브득이 친히 죽이미라.” (〈유씨삼대록〉, 권지십이, 56-65쪽)

34 진세백은 “죽어서 네 가문의 욕됨과 네 부형의 부끄러움을 잊게 하라”고 하교주를 다그친다.

35 자신에게 하사된 기녀 가운데 교주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진세백은 ‘하늘이 날로써 너를 죽여 옛 한을 갚게 한 것’이라면서 살인 행위를 천명으로까지 격상시킨다.

36 유현은 부친 진공에게 “후환이 두려우니 용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설혜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현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문호를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써 문호 보호의 논리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써 동정적 언사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 또한 동원된다.³⁸ 천하의 죄인이라 음사간 특한 존재에게 동정을 표현하는 것은 발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음녀’의 명명(命名)은 그 자체로 연민을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온다.³⁹

살인에 대한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하교주와 장설혜를 음녀로 지목하는 것은 살인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연민까지 차단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진세백과 유현의 정당화 전략은 주변 인물들의 동조를 통해 비로소 완결될 수 있다. 아래에서 두 작품에 형상화된 다채로운 발화들을 살펴 보겠다.

3.2 가문의 명예 회복과 관계 복구를 위한 동조

살인을 긍정하는 발화는 두 작품 중 〈하진양문록〉에만 등장한다.⁴⁰ 하교주의 부친 하공은 진세백에게 딸을 죽여줄 것을 부탁하는가 하면 그녀를 음녀로 명명하며 연민을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하옥운은 소식을 전해 듣고 가

37 진세백이 처참한 교주의 물골에도 태연해하자 함께 심문하던 조현이 불근인정(不近人情)이라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색을 사랑해서 죽이는 것을 아끼느냐”고 되받아친다. 한편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조원에게 “의절한 관계에 무슨 거리낄 것이 있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감정을 조롱하는 동시에 살인에 대한 모든 비판을 ‘사정(私情)에 연연하고 색을 좇는 필부(匹夫)’로 되받아치겠다는 선포이기도 하다. 유현 또한 손녀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는 장상서 부부를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는 아녀자의 태도로 폄하해버린다.

38 주형에는 진세백과 서술자가 모두 쾌락의 상대 교주를 음녀로 지칭하며 주변 인물들 또한 이를 추인하고 있는 점, 이것이 윤리적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제27호, 한국고소설학회, 2009, 215쪽) 본고는 음녀의 명명이 연민을 차단함으로써 정당화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을 검토하겠다.

39 두 작품 모두 하교주와 장설혜를 음녀로 칭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기서는 하백화의 사례만 살펴보겠다. 이복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의논하자 하공은 교주의 시체를 ‘더러운 해골’로 치부하며 그를 질책한다. 결국 백화는 부친의 외면 속에서 측은참절(惻隱慘絶)한 감정을 홀로 감당하며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음녀’의 죽음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고독한 슬픔으로 남겨진다.

40 〈유씨삼대록〉의 경우 진공은 살인의 용인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과도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 장에서는 부정적인

문의 명예에 대한 우려를 간단하게 내비친다.⁴¹ 누이의 죽음에 비통해하는 백화의 태도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비난이나 분노는 절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공과 차이가 있다.

국문장편소설군에서 대표적인 명예살인 사례로 논의되어 온 〈소현성록〉에는 과부가 된 딸이 정절을 잃자 독주를 내리는 어머니가 등장한다. 하지만 딸을 죽인 뒤 남은 자식과 함께 통곡하는 양부인⁴²과는 달리 하공은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드러내지 않는 한편 백화의 슬픔조차 비난한다. 그에게 교주의 죽음은 음녀의 처단일 뿐이다. 하공과 진세백이 개별적으로 타자화, 책임전가를 했다는 점은 선행연구⁴³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그들이 공유한 상호적 면죄부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하교주를 음녀로 명명하고 살해하는 것은 하공과 진세백이 다시 유사 부자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온전한 가족으로 성립하기 위해 서로에게 존재하

지적 없이 긍정과 동조의 발화만 한 인물들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유씨삼대록〉과 달리 〈하진양문록〉에 직접적인 동조가 존재하는 것은 장문과 하문의 작중 위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문은 주인공 하옥윤의 가문으로 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장문은 명문가라고는 하나 작품 내에서는 부차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하문에서 직접적인 동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살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한편 하교주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주동가문의 가부장이자 옥윤의 부친인 하공의 제가 실패를 노출시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동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41 “하심 드러와…진왕이 교주 죽인 일로 일오니 하시 탄식 왈 그 죽음은 앗잡지 아니호는 문호에 불형은 가지록 크도다. 년이노 잘 죽였스니 무엇슬 한혈이오.” (〈하진양문록〉, 권지십육, 28면) 하옥윤은 작품 초반부터 가문의 명예 손상에 깊은 우려를 드러내는 인물로 유광수는 그녀에 대해 여가장의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유광수, 앞의 글, 206-217쪽)
- 42 장시광은 양부인이 이념 체화적 모습을 보이지만 죽은 딸을 두고 통곡하는 인간적 면모를 동시에 드러낸다고 하였다.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66-367쪽)
- 43 선행연구에서 하공의 편애와 무책임한 태도, 도피적 행태는 무능한 가부장의 형상이며 교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한 점을 밝혔다. 유광수는 이에 대해 ‘희생양 만들기 매커니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광수, 앞의 글, 205쪽) 김미정은 “진세백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교주와 사통하게 된 일도, 가문 내에서의 편파적인 가부장의 태도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미정, 앞의 글, 191쪽)

는 무안함과 부채감을 씻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⁴ 그들은 친부자보다 가까운 정도로 돈독했지만 강간모해 사건은 관계에 큰 흠집을 냈다. 따라서 서로를 향하는 비난을 상쇄하고 용서를 주고받기 위해서 제 삼자인 악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교주를 천하의 죄인이자 음녀로 지목한 후 처단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로 삼았다. 결국 살인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는 가문의 명예회복이라는 목적 이면에 책임 전가와 함께 상호적인 면죄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3.3. 다양한 입장차로 인한 비판과 방관의 목소리

하교주와 장설혜의 죽음은 공식적인 문제제기 없이 무마된다.⁴⁵ 하지만 직접적인 비난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이것을 동조나 긍정으로 독해할 수는 없다. 사회적 발화는 개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일정한 내적 검열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유현의 부친 진공은 아버지를 위한 복수라는 인륜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국법으로 이미 처벌이 결정된 사안이며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점, 큰일을 부모에게 먼저 고하지 않은 것, 군자의 중용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의(不義)로 규정한다.⁴⁶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강도 높은 비난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44 이들이 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하공은 당시 진세백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잠잘 때 못에 넣어 죽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가 신중하게 판단했다라면 진세백의 유랑과 옥윤의 자결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진세백도 안면이 서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교주의 죄상이 발각되는 것은 전체 25권 가운데 4권의 내용이다. 하지만 보복살인은 15권까지 유예되는데 하옥윤과 진세백의 혼인에 앞서 교주의 존재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45 고은임은 유현의 행위에 대해 서술자나 주변 인물들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임, 앞의 글, 99쪽)

46 “공이 경히 할 터의 죄 명약관하하나 인명이 지동하고 또한 성상 처치 계시거늘 네 엇디 주형 처살하여 박형 불의하미 심하노. 내 또한 일 다스리물 박히 하여 녹으러운 정시 업스므로 사오나온 녀주의 원을 길워 인륜의 변을 니르려니 한심하고 임의 나라 처분이 명백하시니 고요히 보려두어 진케하미 가하거늘 네 비록 위부복슈하미나 군주의 동용지되 아니로다.” (〈유씨삼대록〉, 권지십이, 57-58쪽)

다.⁴⁷ 그는 극진한 예를 다해 조문(弔問)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장문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불만을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유현의 살인을 정당화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유씨삼대록〉의 장부인과 〈하진양문록〉의 조원은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다.⁴⁸ 따라서 난처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장부인의 발화를 놓고 유현의 살인이 과도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부정당하지는 않는, 공감될만한 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대의 도덕관념과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적 태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⁴⁹ 이것은 사적인 살인이 용인된 배경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주효하다. 하지만 개별 인물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적 검열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고는 위 논의를 수용하면서도 우회적인 지적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부인과 조원의 입장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고려할 점은 ‘애초에 이들이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인가?’하는 것이다. 장부인은 당시 조카이자 며느리인 장설혜

47 진공은 과격한 성정을 지닌 인물로 만약 그가 진심으로 불의라고 생각했다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을 것이다. 유현은 부친의 지적을 듣고도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고수하는데 이것에 대해 추가적인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유현의 모부인인 동시에 장설혜의 숙모인 장부인은 부모의 참혹하게 여기는 정, 부친이 귀양 가고 모친은 처형당한 시점에서 일어난 비극의 강도, 참수의 과도함을 잇달아 지적하면서도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부인이 탄식 왈 그 죄악은 형벌을 밧고도 남으려니와 부모의 참혹히 녀어는 정니는 선악의 잇디 아닐거시오, 더욱 거게 먼니 가시고 제 모친이 그 죽엇거늘 이제 참혹흔 경식으로 죽으미 내 무음이 역시 비월흔디라. 죽이나 형테를 온전케 함이 올랐드...부인이 탄식 왈 내 조식이라도 죄 이시면 홀일업스려든 엇디 딜으를 위하여 너를 불쾌하며 함몰며 주공을 해하여시니 녀게 원슈라. 녀의 죽이를 그르다 함이 아니로디 텨니 조연 불안하나 칭각하면 놀나오니 다시 일코디 말나.” (〈유씨삼대록〉, 권지십이, 59-60쪽) 조원 또한 난처해하면서도 끝내 살해 현장에서 방관자로 남는다. 그는 ‘교주 핍살함을 박결이 녀여하는 빗’을 숨기지 못하지만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진세백에게 농담으로 받아치는 한편 시체 처리를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교주 살해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부정적인 태도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조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9 고은임, 앞의 글, 99-101쪽.

로 인해 자신이 총부(冢婦)로 있는 유문이 삼족지멸에 내몰릴 뻔했었다. 따라서 유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부정할 경우 장문을 감싸려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장씨 문중의 대외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인의 발화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조원의 경우 일개 기녀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을 뿐더러 그녀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⁵⁰

하지만 장부인의 “부모의 참혹히 여기는 정은 선악에 있지 않다”는 말과 “다시는 일컫지 말라”는 발언은 이 죽음이 악인의 징치와 교조적 권선징악의 서사로만 독해될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조원이 “형은 진실노 모진 사름이로다. 군중의서 사름 죽이기를 창승긋치 허더니 알패서 사름 죽이믈 도흔 일 긋치 하니 이 었지 비인정이 아니리오.”⁵¹라고 지적한 것은 방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비난이었을 것이다. 장부인과 조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괴로운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화를 한 셈이다.⁵²

손녀가 살해당한 장상서 부부는 참수된 시체 앞에서 “우리와 손녀아이의 체면을 왜 살피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진작 처단했어야 한다는 유현의 질책과 진공의 극진한 태도 앞에 상황이 무마되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로 남게 된다. 그런데 이를 장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과연 권세가 혁혁한 유문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진공의 태도에 감동했다는 대목은, 설사 진공이 조문 하지 않는다 해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배려해 일말의 체면이라도 세워주었다는 점에

50 그는 과거 자신의 가문에서 하문의 몰락을 근거로 교주를 출거하려하자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감싼 적이 있다. 이후 진세백의 상소로 그녀의 죄가 조정에서 폭로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대신인 진세백과의 대면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51 <하진양문록>, 권지십오, 12-13쪽.

52 하교주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하백화의 경우도 인간적 연민과 그에 대한 억압의 양상이 공존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관기가 된 누이를 알아본 하백화의 괴로움은 진세백에 의해 허용되지만 곧바로 부친 하공이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남게 된다.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난 골육상잔과, 매형이나 다름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복누이가 살해당하는 비극 속에서 백화가 겪어야만 하는 괴로운 심정이 드러난다.

감동한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문이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이들이 살인을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은 애초에 장문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작품 속에서 보복살인이 용인되고는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물들이 겪는 복잡한 심정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는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다양한 발화들을 서술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악인의 처단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귀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정당화의 역설과 미완으로 남은 음녀 서사

〈하진양문록〉과 〈유씨삼대록〉의 보복살인은 생명을 끊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해석되고 명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종결되었다. 진세백과 유현은 하교주와 장설혜를 천하의 음녀로 지목하면서 살인을 전시했다. 의도적으로 살인 무대를 연출한 진세백이나 장설혜의 피가 묻은 채 부인의 처소에 찾아가는 유현의 모습에는 일말의 거리낌은커녕 과시적 면모까지 엿보인다.⁵³ 물론 당대의 윤리에 비춰보면 진세백과 유현의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선후기 부부살해 사건의 법정 기록에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와는 달리,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은 대부분 감형되었던 사례가 남아있다.⁵⁴

53 사람을 거리낌 없이 베고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은 유문과 유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시비가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갖은 고난을 겪었던 양소저는 유현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으나 그가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을 억제한다. 한길연은 이에 대해 양소저가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유현을 두려워하게 된 것과 이러한 두려움이 지속됨을 밝혔다. (한길연, 앞의 글, 79쪽) 한편 이 사건은 유현의 부인들은 물론 그 가문에도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새로 맞이한 왕소저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자 그녀의 부친은 장설혜의 일을 언급하며 꾸짖는다. “네 일족 당시의 일을 듯디 못흐였는다… 혼변 일을 그릇하미 출뵈 되어 검단경혼이 되물 먼티 못흐니… 눈압히 혼변 노흐미 시녀를 방동의서 버히며 궁녀를 단문의셔 죽여 사름의 슈급을 본 후 노 우히 희괴 니러나니 이 엇디 부인 녀지 조심흐며 괴탄호미 업고 도로혀 적은 투기로 네 목숨을 지혹호여 어버이그 욕을 세치려 호노뇨.” (〈유씨삼대록〉, 권지십오, 10-11쪽)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진세백과 유현의 과시적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인물들이 이 살인을 긍정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 긍정이나 동조로 분류될 수 없는 다양한 층위의 발언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살인의 정당화와 균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술자의 발화가 절제된 채 여러 인물들의 발언이 다양하게 조명되는 것은 개별 독자들에게로 판단을 유보하는 효과를 불러온다.⁵⁵ 특히 〈유씨삼대록〉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직후⁵⁶는 물론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도 장설혜 살인을 놓고 등장인물들 간의 의견차를 노출시키고 있다.⁵⁷

물론 하교주와 장설혜에 대한 살인이 작중에서 용인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살인 전후의 과정 속에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진세백과 유현에 의해 그들의 죽

54 정조 때 법정 기록인 「추관지」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경우는 모두 감형 처리되어 아내를 죽인 일로 사형에 처해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박경, 「살육 판결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처 관계상 : 『추관지』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0권, 한국여성사학회, 2007)

55 두 작품 모두 하교주와 장설혜의 죽음에 대해서는 서술자의 발화가 절제되어 있다. 〈유씨삼대록〉은 “당시 가문 너주로 조식과 괴질이 일디에 독보하디 혼 무음을 삼가디 못하여 대죄에 빠져 십륙 청춘 미인이 검단경혼이 되니 엇디 앓갑고 우읍디 아니리오.”라고 짧게 평하고 있으며 〈하진양문록〉에는 하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서술자 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반동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것에 비하면 의외의 대목이다. 살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등장인물들의 발언은 독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향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56 장설혜와 유현으로부터 이중의 피해를 당한 양소저는 죄를 처벌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명을 가볍게 여긴 것과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여러 인명을 상했다는 말에는 유현이 모함을 믿고 자신의 눈앞에서 시비를 죽인 것에 대한 비난의 의도 또한 내포되어 있다. 양소저의 발언은 특정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다채롭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대목이다. “쇼제 청샤 왈…군주의 헝헝시닌 배…너모 밍고 너모 엄혀 인명을 초개갓치 녀이고 결단을 호흡 간의 하여 일이 비록 쾌하나 무츨니 자최 호강헝기의 갓갑고 도덕의 먼디라…전후의 주헝주살하시므로써 유죄무죄 간 여러 인명이 죽으니 이 곳 적덕지가의 큰 흠이라. 엇디 성현군주의 헝시 구티여 살성을 일삼으실 배리잇고.” (〈유씨삼대록〉, 권지십이, 63-65쪽)

57 “양혹수 당녀 취옥이…당시 비록 간악하나 나라 처분 밧긔 가서 죽이고 오미 엇디 인정이리오. 군쥬 왈…당시닌 죄악이 극놀의 당홀배라” (〈유씨삼대록〉, 권지십이, 77-79쪽)

음은 말할 수 없는 피해로 남겨졌다. “내 죄가 중하지만 나라에서 용서한 목숨”이라는 하교주의 절규와 참수당한 시체 앞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슬픔은 ‘음녀’라는 낙인 앞에서 무력해진다. 하지만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음녀 서사의 완성을 꿈꾸는 진세백과 유현의 시도는 역설적으로 그 기회를 통해 내밀한 균열의 목소리들이 발화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하진양문록>과 <유씨삼대록>에서 남성 주동인물에 의해 기획된 음녀 서사는 완결성을 추구할수록 미완으로 남게 되는 모순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20권 20책, 915장본.

<하진양문록(河陳兩門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필사본, 25권 25책, 868장본.

단행본

아이리스 매리언 영, 김도균 외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101-156쪽.

논문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35쪽.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76쪽.

김미정, 「대하장편소설에 나타난 불온성과 전복성 그 의미와 한계: <하진양문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 제4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173-205쪽.

박 경, 「살육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 관계상: 『추관지』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0권, 한국여성사학회, 2007, 35-70쪽.

- 유광수, 「〈하진양문록〉의 작가의식과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열상고전연구』 제 47권, 열상고전연구회, 2015, 191-228쪽.
- 이정원, 「복수의 서사로 읽는 영웅소설」, 『국어국문학』 제186호, 국어국문학회, 2019, 169-197쪽.
-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 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47-375쪽.
- ,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1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29쪽.
-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3-487쪽.
-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제27호, 한국고소설학회, 2009, 201-229쪽.
-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36쪽.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69-121쪽.

Abstract

The Revenge Murder On the Female Villain and it's Justifying Process
 -Focusing on 〈Ha Jin Yang Mun Rok〉 and 〈Yu Ssi Sam Dae Rok〉

Hwang, Ji-hyun

On the studies of Korean long piece novel, it is not yet illuminated that the revenge and violence inflicted on villain. This paper analyzed the aspects of revenge murder, which male main character acts on a female villain, the justifying process of it, and comments and silence of people around in the different positions on the Korean long piece novel 〈Ha Jin Yang Mun Rok〉 and 〈Yu Ssi Sam Dae Rok〉. Jin Se-Baek and Yu Hyun murdered Ha Kyo-Ju and Jang Sul-Hye cold blood who had been punished by the state law. What we focused on is not just the fact of allowance, but the process of justifying through the view of each characters different social positions. Ironically, the narration of Mn-yeo designed by male main character gave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incompleteness of it.

Key words: Korean long piece novel, murder, revenge, villain, mn-yeo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